

# 이번엔, 빨간치마의 마법... 김세영, 세계 1위 보인다

LPGA 펠리컨 챔피언십 14언더파 시즌 2승 '통산 12승'  
상금·올해의 선수·평균 타수 선두...다승도 공동 1위

김세영(27)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펠리컨 챔피언십(총상금 150만 달러) 우승을 차지했다. 김세영은 23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벨에어의 펠리컨 골프클럽(파70·6033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3개로 이븐파 70타를 쳤다. 최종합계 14언더파 266타를 기록한 김세영은 2위 엘리 맥도널드(미국)를 3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우승 상금 22만5000달러(약 2억5000만원)를 받은 김세영은 시즌 상금 113만3219달러를 획득, 상금 1위였던 박인비(32)의 106만6520달러를 제치고 상금 1위가 됐다. 올해의 선수 부문에서도 포인트 30점을 추가, 106점이 되면서 90점이던 시즌 2위를 달린 박인비를 추월했다. 박인비는 이번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다. 평균 타수 부문 1위를 유지한 김세영은 이번 시즌 상금, 올해의 선수, 평균 타수 등 주요 부문에서 모두 선두에 나섰다. 10월 메이저 대회인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을 제패한 김세영은 시즌 2승을 달성했고, 투어 통산 12승째를 거뒀다. 한국 선수 가운데 LPGA 투어 최다승 기록은 박세리(은퇴·43)의 25승이고, 그 뒤를 20승의 박인비와 12승의 김세영, 11승의 신지애(32) 등이 추격 중이다. 전날까지 5타 차로 비교적 여유 있는 단독 1위를 달린 김세영은 이날 9번 홀(파3) 보기로 맥도널드와 격차가 3타까지 좁혀지기도 했다. 그러나 14번 홀(파5)에서 약 4m 정도 중거리 버디 퍼트를 넣고 4타 차로 달아났고, 15번 홀(파3)

에서는 티샷이 벙커에 들어갔지만 벙커에서 친 두 번째 샷을 홀 바로 옆으로 보내 2위와 간격을 유지했다. 16번 홀(파4)에서 맥도널드가 보기를 적어내며 둘의 격차가 5타로 벌어져 승부가 사실상 정해졌다. 마지막 18번 홀(파4)에서 김세영 보기, 맥도널드는 버디로 2타가 좁혀졌지만 순위와는 무관했다. 통산 상금 979만 9895달러를 획득, 상금 1천만 달러 고지도 눈앞에 두게 된 김세영은 교포 선수인 대니엘 강(미국)과 함께 올해 2승으로 다승 부문에서도 공동 1위가 됐다. 2015년 LPGA 투어에 데뷔한 김세영은 2015년 3승을 시작으로 2016년(2승), 2019년(3승)에 이어 개인 통산 네 번째 다승 시즌을 만들었다. 또 김세영은 10월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우승 이후 출전한 첫 대회에서 또 우승했는데 이는 2016년 에리아 쭈타누간(태국) 이후 약 4년 만에 나온 기록이다. 김세영의 우승으로 우리나라 선수들은 올해 LPGA 투어 5승을 합작, 미국과 함께 2020시즌 LPGA 투어 최다승 국가 공동 1위가 됐다. 지난해까지 5년 연속 LPGA 투어에서 가장 많은 승수를 올린 나라는 한국이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 선수로는 김세영 외에 박희영(33)이 1언더파 279타로 공동 15위에 올랐다. 올해 첫 LPGA 투어 대회에 출전한 세계 랭킹 1위 고진영(25)은 3오버파 283타, 공동 34위로 대회를 마쳤다. 세계 랭킹 2위 김세영과 격차가 좁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0시즌 LPGA 투어는 12월에 메이저 대회인 US여자오픈을 포함해 3개 대회가 남았다. /연합뉴스



축하가 비처럼... 김세영(27)이 23일(한국시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펠리컨 챔피언십(총상금 150만 달러)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동료들로부터 샴페인 세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메드베데프, 남자 테니스 최종전 챔피언

세계 랭킹 1~3위 꺾어

다닐 메드베데프(4위·러시아)가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2020시즌 최종전 왕좌에 올랐다. 메드베데프는 23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오투아레나에서 열린 ATP 투어 니토 ATP 파이널스(총상금 570만달러) 대회 마지막 날 단식 결승에서 토미닉 팀(3위·오스트리아)을 2-1(4-6 7-6(7-2) 6-4)로 물리쳤다. ATP 투어 시즌 최종전인 이 대회는 단식 세계 랭킹 상위 8명만 출전, 2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벌인 뒤 4강 토너먼트로 우승자를 정하는 '왕중왕전'에 해당한다. 조별리그에서 세계 랭킹 1위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를 2-0(6-3 6-3)으로 꺾은 메드베데프

는 4강에서 2위 라파엘 나달(스페인)을 2-1(3-6 7-6(7-4) 6-3)로 물리쳤고, 이날은 3위 팀마저 돌려세웠다. 이 대회에서 세계 랭킹 1~3위 선수를 모두 꺾고 우승한 것은 올해 메드베데프가 처음이다. 우승 상금은 156만4000달러(약 17억5000만원)다. 올해 US오픈 4강에서 팀에게 0-3(2-6 6-7(9) 6-7(5-7))으로 졌던 메드베데프는 팀과 상대전에서 2승 3패가 됐다. 198cm 장신인 메드베데프는 1996년생으로 ATP 투어에서 '차세대 선두 주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 아직 메이저 대회 우승은 없으며 메이저 대회 최고 성적은 지난해 US오픈 준우승이다. ATP 투어는 이 대회로 2020시즌을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 광주대·남부대 'U리그 왕중왕전' 진출



경북 김천서 27일~다음달 3일

광주대(사진)와 남부대가 '2020 U리그 왕중왕전'에 진출했다. 최근 끝난 KUSF 대학축구 U리그 6권역에서 광주대와 남부대가 전주대에 이어 각각 2·3위에 오르며 왕중왕전 진출을 확정했다. 광주대는 조선태와의 마지막 경기에서 2-2 무승부를 이루며, 4승 3무 1패(승점 15)로 전주대(5승 2무 1패·승점 17)에 이어 2위가 됐다. 남부대도 마지막 경기에서 목포과학대를 3-0으로 꺾고 동률(4승 3무 1패·승점 15)을 이뤘지만, 득점에서 광주대가 앞섰다.

광주대는 18득점(4실점), 남부대는 12득점(7실점)을 기록했다. 9골을 몰아넣은 박규민이 6권역 득점 1위를 차지하며 광주대의 2위를 이끌었다. 조선태 이윤권도 9골을 기록했지만, 팀은 아쉽게 4위에 머물렀다. 1-8권역의 경우 각 권역 1-3위 팀이 왕중왕전에 직행했다. 9권역에서는 1-4위에게 왕중왕전 티켓이 주어졌다. 또 권역별 4위 팀 중 상위 성적 4개 팀이 왕중왕전 자격을 얻었다. 6권역에서는 광주대와 전주대, 남부대, 조선태, 호남대, 우석대, 조당대, 세한대, 목포과학대가 경쟁을 벌였다. 한편, 32개 팀이 참가하는 U리그 왕중왕전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3일까지 경북 김천에서 열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여름 "팀 파이널 A 진출 최고 순간...나는 복 받은 주장"

"200경기 출장·강팀과 7경기 연속 무패·축구 전용구장 시대 모두 특별"

### 광주 FC 주장이 돌아본 올 시즌

"모두 합성을 지르며 좋아했다"며 광주FC의 '캡틴' 여름은 가장 잊지 못할 2020시즌 순간을 떠올렸다. 여름이 기억하는 그 날은 9월 20일이다. 스플릿 A 다양한 경우의 수를 놓고 숨 막히는 싸움이 전개됐던 이날 광주는 성남을 상대로 펠리페와 두현석의 골로 2-0 승리를 거뒀다. 반면 6강을 노리던 강원이 수원에 1-2 역전패를 당했고, 서울은 대구와 0-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하면서 광주가 기적처럼 사상 첫 파이널 A 진출에 성공했다. 여름은 "경기 종료 후 주위에 있던 관계자들이 우리가 파이널A 막차를 탔다고 알려줬다. 모두가 환호하며 좋아했다"며 "200경기 출장도 소중했지만, 첫 파이널A라 더 기억에 남는다"고 회상했다. 개인적으로도 잊지 못할 날이 있다. 지난 2012년 고향팀 광주 유니폼을 입고 프로 선수가 된 여름은 이듬해 데뷔전을 치른 뒤 줄곧 광주를 대표했다. 상무에서 군 복무하던 시절을 제외하고 광주에 서만 된 그는 6월 14일 부산과의 홈경기에서 출전해 200경기 위업을 달성했다. 여름은 시민구단 출신으로 팀에서만 200경기에 나선 유일한 '현역 선수'다. 올 시즌 광주는 강팀과의 연전 속에서도 7경기 연속 무패를 달렸고, 축구 전용구장시대도 열었다. 특별했던 시즌, 여름은 주장 완장을 차고 그라운드를 누볐다.

여름은 "나는 복 받은 주장"이라며 책임감보다는 고마움을 이야기했다. 여름은 "박진섭 감독님을 비롯한 코치진의 믿음이 있었고, 선수들이 잘 따라와 줬다. 많은 응원을 보내준 팬들까지 모두가 하나였기에 가능한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물론 좋은 순간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만반의 체비를 하고 다시 선 K리그1 무대에서 3연패로 불안한 출발을 했고, 펠리페·홍준호의 동반 퇴장으로 휘청이면서 파이널A 5경기에서 모두 패배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광주는 오히려 위기 속에 더 강해졌다. 여름은 "1부리그의 벽은 높았다. 안 하던 실수가 나왔고, 부상 선수도 있었다. 한 발짝 더 뛰어도 어려웠다"며 "3라운드 상주 원정에서 (김)효기 형이 어떻게든 골을 만들어보려다 부상을 당했는데 모든 선수에게 본보기가 됐다. 이후 강팀 울산과의 무승부로 자신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또 "광주는 항상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는 팀이다. 우리까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더 뽀푼 뭉쳤다"고 돌아봤다.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텅 빈 관중석을 마주해야 했던 2020시즌, 여름은 팬들과 다시 새로운 역사를 쓸 준비를 하고 있다. 여름은 "무관중으로 경기를 해보니 정말 썰렁하고 허전했다. 이게 정말 팬들의 힘인가 싶었다. 팬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선물하고 싶었는데 유관중 경기에서 그렇지 못해 너무 아쉽다"며 "팬들이 있어 선수도 가치가 있다. 다음 시즌에는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으면 한다. 그리고 팬들의 기



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